

'빛의 분수대'에서 솟아오르는 '오월 멜로디'

5·18광장서 개막콘서트 '사계의 멜로디'...진시영 감독 미디어아트 시민들과 한데 어우러진 '축제의 장'... '수중 포그 레이저 쇼' 눈길

'빛의 분수대'에서 솟아오르는 물줄기가 하늘에 흩어지며 천연의 스크린을 만들었다. 그 위로 LED 조명을 비추자 5·18을 상징하는 숫자 '8'이 뿔뿔히 뚫렸다.

이윽고 숫자는 옆으로 회전하더니 무한대를 뜻하는 기호 '∞(Infinite)'로 변했다. 오월 민중항쟁이 오늘날에도 무한히 상기해야 할 역사적 상흔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다가왔다.

20일 저녁 5·18 민주광장에서 펼쳐진 음악분수 개막콘서트 '사계의 멜로디'는 시그니처 미디어아트 작품과 음악, 광주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었다.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춰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음악분수를 기획한 진시영 감독은 "하나된 여향 광주의 모습이 평화의 비둘기, 불감 등 이미지로 분수대에 뿔뿔히 뚫렸다"며 "음악분수가 앞으로 광주와 민주정신의 심장 역할을 하면서 미래세대의 '광주다움'을 그려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광장 분수대는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저항했던 광주정신의 상징이다. 1971년 건립된 이후 광주 시민들은 분수대를 연단 삼아 각종 집회를 열었으며, 5·18 이전 3일동안은 대규모 '민중 민주화 성회'가 열린 기념비적 장소다.

이후 40여 년 시간이 흐르며 배관 등이 노후화돼 개·보수 필요성이 제기됐고, 광주 동구는 광주시로

부터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지원받아 보수를 진행했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간 경관 기반 조성사업과 연관돼 2021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가 이뤄졌다. 그러다 여러 사정이 맞물려 잠시 중단이 되었고 등 우여곡절이 있었고, 최근 완공됐다.

이날 행사는 분수대 작동을 기념하는 뜻까지 포함해 남다른 의미를 더했다.

실제로 수중펌프와 LED 조명 등이 움직이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수압으로 허공에 오른 물줄기는 끝없이 솟아나는 민주정신을 형상화하는 듯했다.

미디어아트 감독 진시영 감독이 기획한 이날 행사는 광주동구합창단의 오프닝 공연이 막을 올렸다. 합창단은 '나 하나 꽃피어'와 불발간사준기의 '여행'을 들려줬다.

개막공연을 선보인 박병국 광주동구합창단 지휘자는 "민중항쟁의 구심점이던 분수대 앞 특설무대



진시영 미디어아트 감독



5·18 민주광장 '빛의 분수대' 앞에서 광주동구합창단이 개막공연을 펼치고 있다.

에서 공연을 펼칠 수 있어 뜻깊다"며 "비오는 곳은 날이지만 그럴수록 민중항쟁의 뜻을 노래로 널리 퍼뜨리겠다"고 말했다.

'수중 포그 레이저 쇼'도 신비로웠다. 분수대 측면에서 객석 방향으로 연무가 피어오르면서 민주광장 일대는 희뿌연게 변했다.

공연 현장은 최루탄 연기 자욱했던 오월 당시를 재현하는 듯했다. 안개를 뚫고 나오는 형형색색의 LED 레이저 불빛들은 분수대 위를 비추면서 '폭죽', '음표' 등의 모양을 만들어 냈다. 최신 LED기

구 등을 접목한다는 이번 행사의 취지에 맞게 분수대 위에 뿔뿔히 뚫린 이미지는 360도 어디에서나 관람할 수 있을 만큼 선정했다.

서영은 곡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주위는 엄숙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행사 때마다 불리는 오월정신의 상징곡이다. 노래 중간마다 실제 불꽃이 터져 나오면서 오월 햇빛을 흔드는 듯한 장면은 실제 모습처럼 현실감을 전해줬다.

이외에도 대중가요 아이유 '너의 의미', 아티포

댄스팀이 추는 POP 뮤직 댄스 퍼포먼스, 무한캐드 '그대에게' 등이 울려 퍼졌다. 광주 시민들은 가·무·악이 어우러진 예술 난장(亂場)에 어깨를 들쭉거리며 오월의 아픔을 털어내는 듯했다.

이렇듯 미디어아트를 가미한 분수는 5·18을 현재와 해 민주정신을 고양하는 촉매제로 다가왔다. '빛의 분수'는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는 매개를 넘어 아래로부터 솟아나는 '광주 민중'의 염원을 재현하는 것처럼 다가왔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부부 피아니스트 선율...신비로운 '환상곡'을 감상하다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23일 광주예술의전당...강충모·이혜전 협연

작곡가의 환상적 감성과 내적 정동 등을 묘사한 '환상곡(Fantasia)'은 형식이 자유로운 소나타, 즉흥곡, 몽상적 분위기의 낭만파 소곡 등을 일컫는 표현이다. 아름다운 화성과 조성변화 등은 문자 그대로 '환상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광주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홍석원)이 제376회 정기연주회 'Fantasia'를 오는 23일(오후 5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연다. '음악어법에 혁신을 가져왔다'라는 평가를 받는 베를리오즈부터, 복잡한 선율을 명료함을 담은 프랑크까지 서구 음악가들의 환상곡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

다. 지휘에 홍석원.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느'가 막을 연다. MBC드라마 '왕조' 오프닝곡으로 활용대 관객들의 귀에 익숙한 작품이다. 또 20세기 대표작 중 하나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D단조'는 나란히 피아노를 두고 연주하는 연탄곡을 연상케 하는 풀랑크의 작품인데 부부 피아니스트 강충모, 이혜전이 협연할 예정이다.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도 공연장에 울려 퍼진다. 여배우 스미드슨과 연애 끝에 창작한 이 작품은 극적이면서 프랑스 낭만주의 사조를 혁신했다는 평

을 받고 있다. 당시 유행하던 '절대 음악'에 반해, 음악 외적 이야기를 음악적으로 묘사하는 '표제음악(標題音樂)'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음악 애호가들의 관심을 받은 작품이다.

한편 피아니스트 강충모는 서울대 기악과 졸업 후 샌프란시스코 음대, 피파디 음대에서 수학했다. 그동안 바르샤바 쇼팽 국제콩쿠르, 더블린, 상하이, 서울 등에서 열린 국제콩쿠르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일본 토호음악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충모와 서울대 동문인 이혜전은 뉴잉글랜드 음대, 남가주대에서 각각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줄리어드 예비학교 교수를 역임한 뒤 현재 숙명여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부부 피아니스트 이혜전(왼쪽), 강충모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GMAF 매칭페어'

10월15일까지 참가자 모집

디지털과 문화예술의 접목은 다양한 콘텐츠 생산 외에도 새로운 산업화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유네스코 미디어창의도시 광주에서 미디어콘텐츠는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23 광주미디어아트페스트를 기념해 미디어 기술과 현장 사례를 지역 예술가, 시민들이 공유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일명 '2023 GMAF 매칭페어'.

아트컴퍼니모이모(대표 서지안)는 2023 광주미디어아트페스트를 기념해 미디어 기업과 예술가, 학생들이 만나는 매칭페어 참가자를 오는 10월 15일까지 모집한다.

'2023 GMAF 매칭페어'는 미디어기업 기술과 현장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미디어 기업 x 참여자 네트워킹'과 아울러 참가자중 1인을 선발해 미디어콘텐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모두 3곳이다. '미디어큐브' 공간 조성사(주) 클리제를 비롯해 '가상공간(교육문화 콘텐츠) 투어' 제작 및 설치 사례에 (주)호영엑스알, '제페토랩'으로 광주일신방직을 지원한 다오라 월드 등이다.

아트컴퍼니모이모 서지안 대표는 "디지털기술과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개인의 만남과 매칭은 새로운 가치와 미디어 인력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패션과 하이퍼팝 콜라보 '융복합 전시'

김나연 'Hyper Industry'전, 10월 7일까지 주안미술관

'Hyper Industry'라는 회사가 있다. 물질이 아닌 현상, 개념을 토대로 설립된 가상회사로, 3D 프로그램을 이용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미적 가치를 융합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주안미술관에 들어서면 패션과 하이퍼팝 음악을 콜라보한 융복합 전시를 만날 수 있다. 오는 10월 7일까지 'Hyper Industry'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는 김나연 작가 작품이 출품됐다.

작가는 조선대 섬유패션디자인학과를 졸업 후 현대 의상 외에도 전통의상, 사이버 펑크 스타일의 미래지향적인 의상 디자인을 추구해왔다.

'Hyper Industry'는 음악의 장르인 하이퍼 팝

(Hyperpop)에서 따왔다.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고에너지의 전자음악 일종으로 PC에서 나는 소리에 키치한 성질을 넣어 예술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과정에서 기괴하고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작가는 이번 작업을 생계범을 초월한 현대 아웃리프 앤드로지너스, 유니섹스 혹은 섹슈얼리티 디자인으로 진행했다. 옷감의 패턴은 시각디자인을 활용해 패션쇼 BGM(하이퍼 팝)과 함께 조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티스트 윤여진과 하이퍼 팝 음악 작업을 했으며 패션쇼에 어울릴 법한 음악 2곡 타이틀 'Dutch



'DESIGN_11_전체'

pump'와 'Faceless'를 선보인다.

송진주 학예 연구사는 "김나연 작가의 작품은 의상이 단순히 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일상의 필수적인 요소로 소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나아가 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패션에 대해 생각도 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뜻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